

어린이 책꽂이

▲만화 삼한지(전6권)=신라, 고구려, 백제의 패권쟁탈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역작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화로 엮었다.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춘추와 김유신의 부모 이야기를 그린 1권 '밤이 깊을 수록 별은 빛나고'를 비롯, 2권 '수양제의 고구려 정벌', 3권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4권 '김유신과 김춘추', 5권 '새로운 영웅들', 6권 '나당전쟁과 삼국통일' 등으로 구성됐다.

(자음과 모음·각 9천700원)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위대한 작곡가들이 어떤 배경으로 훌륭한 음악을 남기게 되었는 지 그 과정을 담은 책. 책 제목인 전람회의 그림은 진실한 우정의 힘을 통해 절망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킨 곡이다. 부록으로 CD음반이 포함됐다. <책크로·1만2천원>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고전편=초등학교생이 알아야 할 우리나라 문화유산 시리즈로 전통, 관습, 유물, 유적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수록돼 있다. 삼국유사, 계원필경, 왕오천축국전 등의 내용과 작가 소개, 고전이 탄생하게 된 배경 등을 담았다. <배동비지·7천900원>

▲금방울전=인간세상과 신선세계, 천상세계를 넘나드는 등 우리 조상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재미있다! 우리 고전' 시리즈. 경이로운 변신과 신비한 도술이 펼쳐지는 등 흥미진진하다. <창비·9천원>

▲청아, 청아 눈을 떠라=잘 알려진 고전 '심청전'을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의 시각에서 다시 풀어쓴 동화. '심청전'이 심청의 효성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세심하게 그려냈다. <창년사·8천원>

'자연의 힘'이 역사까지 바꾼다

날씨가 바꾼 전쟁의 역사 에릭 두르슈미트 지음

유사 이래 인류는 늘 자연의 영향 아래 있었고, 인류사 역시 자연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과 충돌했을 때 그 결과는 대개 자연으로 이어졌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 자연재해가 훨씬 더 끔찍하고 심각하다는 건 상식이다. 날씨가 신의 영역이건 악마의 영역이건 인간의 삶을 일정하게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일으킨 전쟁도 예외가 아니다.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에는 불가항력인 자연의 힘이 작용했다. 자연의 기우는 때로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역사를 결정짓기도 했다.

'날씨가 바꾼 전쟁의 역사'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프리즘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종군기자로 전쟁을 누빈 저자 에릭 두르슈미트는 이 책에서 10개의 전쟁과 1개의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다. 수백명에 달하는 전쟁 당사자의 육성과 풍부한 자료조사, 그리고 자신의 전쟁 체험을 토대로 마치 현장에서 리포트하듯 생생하게 전쟁이야기를 풀어낸다.

저자는 유명한 역사 기록 가운데 전쟁 당시의 기상조건과 전투장면에 관한 기록을 풍부하게 인용, 사실감을 높였다. 전황지도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날씨가 승패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까지 바꾸어놓은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포착해 리얼하게 묘사해낸다.

'괴멸된 바루스의 로마군단'에서는 게르만

족의 영토 대부분을 점령한 로마군이 반란군 토벌에 나섰다가 토이토부르거 발트에서 천둥과 번개로 전멸하다시피 한 내용을 다룬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침공에 나섰다

기상조건·전투장면 기록 인용

종군기자가 쓴 '전쟁 이야기'



사막 기후라는 악조건 속에서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군들이 부상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다.

전쟁보다는 동장군과 싸우다가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히틀러 역시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똑같은 시기에 같은 길을 따라 러시아를 넘보다가 흑한 때문에 쓰디쓴 고배를 마셨다.

베트남 전에서 미군은 정상적 문순 기간을 연장시켜 팜바닥을 질러가려 함으로써 상대편의 보급라인을 약화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기후 조절 기술을 이용했다. 암호명은 '뽀뽀' 작전이었다고 한다.

저자는 그러나 날씨를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자기 파괴능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상징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는다.

<이미디어·1만3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세기를 대표하는 200인의 얼굴

아이콘 바버라 캐디 지음

아이콘(icon)은 '이미지'나 '표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에이콘(eikon)에서 파생된 단어다.

'아이콘'(전 2권)은 '차이를 만들어낸 200인의 얼굴'이라는 부제와 함께 '20세기의 아이콘(icons of the 20th century)'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 200명의 사진과 설명을 모아놓은 책이다.

'20세기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고, 좋은 나쁘든 현대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정의에 적합해야 한다. 아이콘을 선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예술·과학·정치·스포츠·출판·패션·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 1천명 중 우선선 6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이 2년 간의 투표와 통계 작업을 거쳐 200명의 아이콘을 만들어냈다.

작가이자 편집자인 바버라 캐디가 쓰고, 사진은 '아메리칸 포토' 편집자인 장-자크 노데가 맡았다. 한국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거름·각권 1만4천9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휴먼 테크놀로지가 삶의 질 높여

내 삶의 주인이... 이승현 지음

지난 2000년 미국 인터넷 사이트인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힐링 소사이어티(Healing Society-A Prescription for Global Enlightenment)'의 저자 이승현 박사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술-HT'를 발간했다.

단학(丹學)선원의 창시자이자 뇌호흡 개발자인 이 박사는 책에서 휴먼 테크놀로지(Human Technology)야말로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내 삶의...' 역시 올 초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저자가 말하는 휴먼 테크놀로지는 제도화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건강, 성(性), 삶의 목적을 주체적으로 이끌기 위해 명상·호흡·자양·기체조 등의 방법을 제안한다. 이같은 전통건강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몸의 근본적인 생명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문화·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임용한의 '조선국왕 이야기'

요즘 들어 부쩍 오래 묵은 것들이 당긴다. 작가 지망생 시절에 의 무감으로 읽었던 고전이나 멋도 모르고 들었던 클래식 음악, 박제화 된 듯 교과서에 갇혀있던 역사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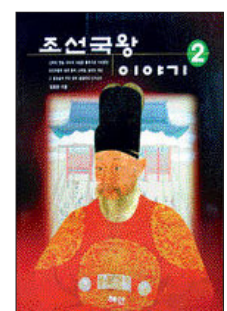
세상이 어지러워 그 변화의 추이를 따라잡기 버거울 때에는, 주권을 잃고 부화뇌동하기보다 변치 않는 것들에서 가치를 찾고 해법을 묻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민족의 수많은 문화유산들 중에 내가 긍지를 가지고 주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조선왕조실록'이다. 그것은 단순히 조선왕조 500년, 군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은 때로 목숨을 걸고 사초를 지켰으며, 왕조차 그것을 삽사리 변형시키지 못했다.

물론 '실록'은 전왕의 사후 현왕의 지휘로 작성되는 기록이라 당시의 정치적 이해나 역학관계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교하게 직조된 듯한 사실들 속에서 사급과리처럼 빛나는 진실이 있다.

그것을 찾는 일은 단순히 역사학자들의 몫이 아니다. 과거와 현

역사에서 '인간'을 읽다



실, 현실과 미래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행간에서 지금 자신이 찾는 가치의 편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용한의 '조선국왕 이야기'(전 2권·해안출판사)는 의미가 있을 뿐더러 매우 재미있는 책이다. 책의 1권은 태조에서 예종까지, 2권은 성종에서 인종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조선국왕 이야기'가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점은 절대 권력자인 왕을 '인간'으로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권과 신권의 길항은 왕조를 관통한 논리였으며, 그 속에서 왕은 오직 스스로의 방식으로 살아 남았다.

그들은 영웅이거나 거인이거나 외로운 천재이기도 했거나 비겁자였거나 미치광이거나 번덕스러운 의심꾸러기이기도 했다. '실록'에는 왕의 성격이 어땠고 그가 무슨 마음으로 정국을 운영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하늘의 태양처럼 지상에 단 하나 뿐인 고귀한 존재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필부들과 하등 다를 것 없이 희(喜)·노(怒)·애(哀)·낙(樂)·애(愛)·오(惡)·욕(欲)을 모두 가진 인간이었다. 그러하기에 역사는 찬란한 위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오로, 실수로까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역사에서 인간을 읽는 '조선국왕 이야기'의 새로운 시도는 흥미진진하기 이를 데 없다.

나는 이 책의 저자 임용한의 전공이 처음에는 사학이 아닌 신학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는 현재 역사학자임과 동시에 모교회의 담임 전도사이기도 하다. 문학이나 신학이나 모두 그 바탕은 인간에 대한 탐구와 이해에 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인간의 이야기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에 길을 묻는 사람에게 그것들은 케케묵어 낡고 지루한 옛날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에는 언젠가 이 별을 스쳐 지나간 숱한 사람들의 꿈과 사랑과 열정과 정통이 묻어 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일 수 없다.

김별아 <소설가>

엘지공인중개사 T.019-616-2353 011-601-8230

이영구 공인중개사 T.269-3949, 010-2002-5555

LC타워(주) (02)972-8004, 010-7154-6896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1-638-2656

21세기부동산개발(주) 호남대표부동산! (02) 525-0021, 전철상담 011-612-3421

대인동심일부동산 (02)229-1140, 010-602-2332